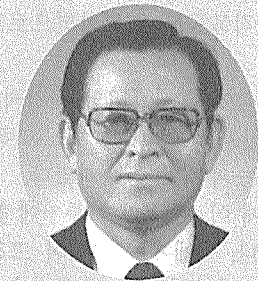


6·25 40周年을 맞이하여 大韓石油協會 홍보과장 으로부터 「에너지와 軍作戰」에 관하여 투고를 要請 받았으나, 讀者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저하면서 과거 「에너지」가 軍작전에 영향이 지대했음에 대하여 간단히 말해 보고자 한다.

## 에너지와 軍作戰



林 富 澤  
(예비역육군소장·육사1기)

### 에너지와 인간관계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絶對不可缺한 자원이다. 人間이 생존하기 위하여 왕왕이 의·식·주만을 추구하고 있으나,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공기와 에너지이다.

천연자원의 공기와 에너지 없이는 1초도 생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원이다.

우리는 이 중요한 자원확보를 위하여 더 많은 연구와 기술개발 및 예산의 투자가 중요하리라 믿는다.

### 에너지와 軍작전

東西고금을 통하여 에너지는 軍작전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투중에도 병력과 전투물자수 송등 직접적으로 승리를 좌우한 바 허다했다.

40年前 국내에서는 휘발유 한방울도 생산되지 못하고 전부 수입이나 美軍의 지원으로 보충되어 왔다. 그러므로 작전중인 지휘관들은 무기탄약과 휘발유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필자는 6·25당시 제6사단 7연대장으로 春川북방 加平으로부터 楊口남방까지 38선 방어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北傀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되자 江原道知事와 관계국장과 협의하에 작전수행에 부족되는 장비(화물자동차)와 물자(식량과 휘발

유)의 확보가 긴요하여 요청한 바 쾌히 승락, 우선 민간화물자동차 50량을 징발, 各隊에 배차 기동력을 확보하고 휘발유와 식량도 확보, 전투지원에 만전을 기했다.

全戰線은 北傀의 기습남침으로 후퇴했으나, 春川 지구는 북괴군을 3일간이나 저지하면서 2개사단(北傀제2·7사단) 병력을 北漢江과 昭陽江의 하천을 이용 섬멸했다.

이로 인하여 北傀의 남침계획을 최초부터 차질을 가져오게 했으며, 조국수호에 큰 공적을 남겼다.

## 기동과 집중

전쟁 9대원칙중 중요한 것이 기동과 집중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곧 에너지이며 휘발유이다. 이것 없이는 많은 차량이 움직일 수 없다.

전쟁에서 지휘관의 의도대로 병력을 기동으로 집중하는 것은 곧 전승의 관건이 된다.

수도 서울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등 전세가 극도로 불리하여 지연전으로 들어갔다.

연대는 春川으로부터 遲延戰을 실시하면서 忠州에 도착되자 사단으로부터 연대는 陰城으로 이동, 長湖院방면에서 남하하는 적을 저지격멸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연대는 기동으로서 제3대대와 연대수색중대를 장호원방면으로 급파하여 저지하면서 지연전을 전개케 하고 제1·2대대는 陰城 북방고지에 배치 방어케 했다.

제3대대와 연대수색중대는 적과 접촉, 타격을 가한 후에 야음을 이용 철수, 연대 예비가 되었다.

적(北傀 15사단 48연대와 직할포병연대)은 아군이 이 지역에서 전부 철수한 것으로 오인하고 연대 진내인 同樂國民學校와 부근부락 일대에 집결, 宿營중에 있는 것을 여명을 기하여 제2대대로 하여금 직접 제1·3대대는 지원, 연대탄막을 구성하여 일제히 공격 섬멸시켰다.

이로 인하여 전군의 전세를 유리하게 유도하였으며, 침체된 사기도 양양시켰던 것이다.

이 국부적인 승리와 경이적인 전과를 획득한 연대 전장병에게 대통령각하께서 그 공로를 치하하

시어 1계급 특진의 은전을 내리신 바도 있었다.

## 추격전과 에너지

추격은 적 주력부대의 섬멸을 기하는데 있다. 추격은 적이 진지를 유지하는데 곤란을 당하고 있을때 지휘관은 공격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무자비한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 추격을 해야한다라고 되어있다.

연대는 개전초 春川에서 민간차량을 징발하여 완전 기동화하였으므로 적을 용이하게 무자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50년 9월 15일 전군에 반격명령이 하달되자 각부대들은 선두다툼을 하면서 반격을 개시하게 되었다.

연대는 전차량에 유류보급을 충분히 한후 기동으로 사단의 선봉대가 되어 軍威 義城·安東·醴泉·店村을 수복시키고 聞慶·忠州·原州를 탈환, 9월 28일에는 洪川·春川을 서울 수복과 같은 날 탈환하였다.

유엔군사령부로부터 북진명령이 하달되자 10월 1일 華川을 점령한후 일로북진중 元山에서 1일간 부대정비를 하게 되었다. 38이남에서 보급, 특히 휘발유는 용이하였으나 38이북부터는 보급로가 원거리가 되어 작전에 지장을 받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후부터 연대는 각차량에 항시 1드림의 유류를 비축시켜 작전에 임하도록 하였다.

元山에서 平壤을 목표로 악전고투 끝에 成川을 점령하자 공격목표를 江界방면으로 전환 변경했다.

연대는 휴식이나 재정비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북진 또 북진을 거듭하여 적으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추격을 계속하였다.

順川 근방에 이르렀을때 하루전에 美187공수부대가 낙하였으나, 적에게 포위되어 고전하고 있다는 급보를 받고 야간전투를 전개하며 順川을 점령, 소탕전까지 강행하여 그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하였다.

順川에서 价川으로 진격하는 도로변에는 놈들의 고급승용차와 화물차가 제멋대로 버려져 있었다.

그중 한대의 화물차에는 시동이 걸린채 화물이 만재되고 시트로 덮여있어 이상히 여겨 조사를 시켰더니 그 속에는 北韓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다.

이것을 보더라도 놈들이 얼마나 火急하였든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연대 전투원들의 사기와 수복지구에서 민폐를 막기 위하여 인사참모와 경리장교를 시켜 전장병들에게 5만원씩 지급토록 하였다.

연대는 약간의 패잔병과 보안대원들로부터 저항을 받았지만 이를 물리치고 价川을 점령하였다.

이날 价川驛 구내에는 북행중인 전차 20량과 화물차(醫藥品과 군수물자) 10량 및 기관차등을 포획하였다.

민간인 진술에 의하면, 유엔軍 포로후송열차가 전날밤 价川驛을 통과하였다 함으로 이들을 구출키 위하여 맹추격을 하면서 수색작전을 벌였다.

价川북방 6km地点에 있는 터널앞 강변에 50餘名の 유엔軍 전우들을 무자비하게 학살 방치한 것을 발견케 되었다. 그중 7명은 치명상을 면하여 시체더미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3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포복으로 5백여미터나 떨어진 숲속으로 기어나와 숨어있는 것을 찾아서 美187공수단에 연락하고 후송조치를 취하였다.

연대는 계속해서 연합군의 선봉으로 패주하는 적을 앞질러 추격을 거듭하면서 球場을 장악한 후 10월 20일 명승지인 妙香山을 거쳐 熙川을 점령하였다.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제6사단에게 碧潼楚山지구를 점령 확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사단에서는 제2·19연대를 주력으로 碧潼방면으로 추격케 하고 제7연대는 楚山방면으로 급진, 잔적을 소탕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연대는 鴨綠江을 지척에 두고 있어 日氣의 불순도 아랑곳 없이 사기가 충천하였으며, 벽찬 감격은 통일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큰 저항없이 豊場과 古場을 거쳐 10월 26일 대망의 鴨綠江邊 楚山을 점령하였다.

楚山에서 鴨綠江은 1키로 정도로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근거리였다.

연대지휘소를 古場에 정하고 제1대대는 楚山에

전개시켜 최후의 소탕작전과 江界방면에 위력수색을 하도록 하였고, 제2·3대대는 古場부근에서 四周防禦를 하면서 碧潼방면에 위력수색을 하도록 지시한후 참모들을 대동하고 鴨綠江邊으로 나아갔다. 사병들은 감격한 나머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 들고 있었다.

鴨綠江은 漢江보다 폭이 넓고 수심도 펴 깊으며 양쪽 가득히 물이 범람하여 유유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江 건너 滿洲땅의 잡초만 우거진 황량한 산과 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鴨綠江에 왔구나, 승리했구나, 국토가 통일이 되었구나”하는 감격속에 제1대대 장병과 楚山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鴨綠江邊 높은 곳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애국가를 목이 터지도록 합창하였는데, 백차오르는 환희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회에 젖기도 하였다.

사단으로부터 10월 28일 야간에 전세가 급변하여 中共軍이 대거 鴨綠江을 도하 韓國전선에 참가중이며 中共軍 40군 3개사단과 북괴군 2개사단이 연대를 포위중이니 檜木洞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연대는 후방 溫井里 부근에서부터 보급로가 차단되어 공중보급을 요청, 탄약과 휘발유, 식량을 수송기 4대로 보급받은 후 楚山에 체류한지 5일째되는 31일 원한의 鴨綠江을 뒤로 楚山읍민들의 몸부림치는 절규와 구원의 호소를 여운으로 남긴채 철수작전을 전개했다.

적의 포위망으로부터 돌파작전은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

연대는 부득이 우리의 중장비와 차량을 전부 파기하고 경무장으로 돌파작전을 해야 되었다.

부대는 대대별로 돌파작전을 시도했으나 희생이 너무나 컸다.

연대장인 나도 3대대와 연대본부요원으로 돌파작전을 실시했으나 실패했다. 各隊의 잔류병과 연대본부요원을 규합해서 임시 7개중대로 재편하고 白頭山쪽으로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남하, 백전고투 끝에 25일만에 적의 포위망을 탈출 우군의 품에 합류 원대복귀하였다.

## 에너지관리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이를 움직이는 에너지 소비량도 늘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의 증가폭은 GNP 성장률과 비슷하다고 본다. 그러나 石油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과소비에 대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은 물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산유국들의 횡포에 대비하여 평상시부터 소비절약의 규제화와 과소비의 통제를 생활화해야 되며, 비축시설의 확대와 자원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에너지와 國防

에너지는 국가경제발전은 물론이요, 국방사업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이 된다.

국내경제와 국방사업이 고도성장함에 따라 에너지와 그의 자원의 수요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국방사업중 특히 太陽과 光事業, 또는 핵에 관한 사업은 긴요한 사업이다. 국내의 기술진과 자금을 동원해서 실용화했으면 한다.

## 결론

에너지는 국가경제발전과 국방사업발전에 중대한 원동력이며 자원이 된다.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에너지의 소비량도 확대된다.

국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 부존자원의 탐사와 개발의 극대화,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소비절약 기술의 개발, 태양(光)개발 및 열이용기술의 개발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에너지 절약의 극복을 위하여 국가정책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단없는 국민 경제 및 국가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론을 맺는다.♣

### □ 明心寶鑑 □

孫思邈이曰  
膽欲大而心欲小하고  
知欲圓而行欲方이니라

손사막이 이렇게 말했다.  
“담력은 크게 가지되 마음은 작게 가져야 하고,  
지혜는 원만하게 가지되, 행동은 방정해야 한다.”

담력은 곧 용기다. 사람은 용기가 있고 마음은 치밀해야 한다. 마음만 크고 용기가 없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또 지혜는 풍부해야 하지만 행동은 방정하여 선과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아는 것이 적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고, 행동이 방정하지 못하면 악과 불의를 저지르기 쉽다.